

# 녹용 및 녹혈의 임상효능

녹용은 예로부터 인삼과 함께 한방의 고귀 약 중에 쌍벽을 이루는 약물로서 우리나라나 중국의 약장에 「삼용(參茸)」이라는 두 자가 거의 씌어져 있다. 녹용은 가장 오랜 한방서 중의 하나인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 처음으로 기록된 이후, 한방에서의 대표적인 보양약 중의 하나로 사용되어 온 약물이다.

녹용에 대한 문헌을 잠깐 살펴보면 「포박자(抱朴子)」에는 『사슴의 수명은 일천년인데, 오백세가 되면 그 색이 희게 된다』는 기사가 있고, 또 「술리기(述異記)」라는 책에도 『녹용은 일천년에 창록(蒼鹿)으로 되고 또 백년을 지나면 백록으로 되며, 다시 오백년이 지나면 화하여 원록(元鹿)으로 된다. 한(漢)의 성제(成帝)의 때에 산중의 사람이 원록을 잡아서 요리할 때에 뼈를 보니 검은색으로 되어 있었다. 선인(仙人)은 원록을 잡아서 먹으면 수명이 이천년이나 연장된다』라는 기사가 있다. 물론 이러한 기사는 과장되어 전해진면이 있기는 하지만, 예로부터 사슴의 정력이 강하다는 사실이 믿어졌고, 고기를 먹는 동시에 양근(陽根)과 비슷한 모양을 한 특이한 형태의 빨도 그 발육이 빨라 녹용을 먹으면 즉시 효과가 있어 장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소박한 사형동효론(似形同効論)에 기인한 상형약물요법을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녹용의 약효를 기록한 고문헌은 후한(後漢) 경이지만, 실제의 사용은 선주(先奏)시대에 까지 거슬러 올라 갈 것으로 생각된다.

녹용의 약효는 신농본초경에는 『자궁하혈 및 미열과 깜짝깜짝 놀라는 증상을 주로 치료

하며, 기운을 더하게 하고, 정력을 증강시켜 의지를 강하게 하며, 신장이 주관하는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늙지 않게 한다』고 되어 있다. 후한 이후에 계속 인용되어 주로 정(精)을 더하게 하고 늙지 않게 하며, 경련의 증상을 없애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육조시대 부터는 피부질환에도 사용하게 되었다. 「일화자본초(日華子本草)」에는 『남자의 허리가 시큰거리고, 다리와 무릎에 힘이 없는 증상을 보(補)한다. 밤중에 꿈에서 귀신과 교접을 한다든가 조루증, 부인병의 하혈, 대하에는 공복시에 술로 복용한다. 또 근골을 튼튼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 송대 이후에는 정력증강, 불노장수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근년에 이르러 녹용이 피로나 쇠약상태에 있는 장기, 혈관, 운동근조직 및 신경세포 등에 매우 흥미있는 작용을 확인하고 고래의 녹용의 약효가 결코 황당무계한 것이 아닌 것을 증명했다.

사슴은 녹용 뿐만아니라 각종 부위가 약용으로 쓰이는데 본초강목에는 녹각(鹿角), 녹각교(鹿角膠), 이(鹿齒), 뼈(鹿骨), 머리고기(鹿頭肉), 족발(鹿蹄肉), 기름(鹿脂), 골수(鹿髓), 뇌(鹿腦), 정액(鹿精), 피(鹿血), 생식기(鹿腎), 담낭(鹿膽), 근육(鹿筋), 가죽(鹿皮), 대변(鹿糞) 등의 효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시판되는 것은 녹용, 녹각 및 녹각교, 녹혈 등이다.

실험상으로는 녹용을 25~25% 가한 식이에서 사육한 생쥐는 대조군에 비하여 체중이 증가하는데 이것은 첨가하는 양에 비례한다. 건강한 성숙 토끼에서 녹용의 분말을 일정량

경구투여 및 물엿기스를 복강투여한 경우, 투여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혈구, 특히 적혈구수의 증가가 확인되었고, 동시에 혈색소량도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이 현상은 투여량에 거의 비례한다. 이상의 결과로 녹용에는 동물의 발육촉진 및 조혈기능 촉진작용이 있지만 그 작용물질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또 녹용에는 소량의 난포호르몬을 함유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어떤 종의 침출액에는 남녀양성호르몬과 같은 작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다.

녹용의 약리효과를 보면 ①부교감신경말초부의 긴장의 항진 ②신경, 근육계의 기능의 개선 ③내분비계의 기능을 항진시키는 효능이 있다. 또 임상적으로 ①심장혈관 및 심근에 특이적인 작용을 하여 심장기능을 회복시킨다. ②소화기관계통의 기능을 촉진시킨다. ③신장기능을 촉진시킨다. ④근육의 피로를 회복한다. ⑤정신신경긴장증, 신경쇠약 및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신경계통을 진정시키고 강장작용을 한다. ⑥정력감퇴, 무기력증에 대하여 성기능을 회복시키고 촉진시킨다. ⑦종양이나 상처에 치유촉진 등의 작용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한방적으로는 녹용은 피(血) 및 고기(肉)의 정수인데 능히 사람의 양기를 길러서 신명을 보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골수를 보하고, 정을 더하게 하며, 피를 자양하는 약물이다. 허한 사람을 보하고, 마른 사람을 살찌게 하고, 기의 소통이 안되는 곳을 이어주며, 겹이 많은 자는 튼튼하게 하고 추위를 잘 타는 사람은 따뜻하게 하여 주는 효과등 모든 진양(眞陽)이 쇠약한 일체 허손증에 사용된다. 또 궤양이나 상처가 오래 낫지 않는 곳에 사용하면 조직이 잘 생기게 한다.

이러한 효능으로 인하여 녹용은 강장, 강정, 진통약으로서 발기부전, 어지럼증, 귀울림, 요통, 대하, 만성적인 허약등에 응용되고 있다. 최근들어 머리, 목, 척추의 손상과 함께 발생하는 두통, 뻣뻣함, 어깨가 걸리는 증상, 요

통, 등 사지가 저린 감, 쉽게 피로가 올때, 무기력, 불면 등 증상에 사용하고 있다. 또 자율신경실조증, 저혈압증, 갱년기장해시에 복용하면 일정한 효과가 있다.

한편 녹혈의 효능을 보면, 녹혈에는 다른 가축의 피에서보다 칼륨 및 미량의 광물성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실험적으로 사슴피는 성장발육을 촉진시키고 체중을 증가시킨다. 또한 흰쥐에게 사슴피를 먹이기 10일전부터 시작하여 40일 동안 4일에 한번씩 수영시간을 켜 결과 그 효능은 사슴피를 투여하기 시작한 후 5~6일이 지나서부터 나타났으며 제20일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신선한 혈액일수록 그 효과가 높게 인정되었다. 혈액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사슴피를 투여한 흰쥐는 대조군보다 유의한 적혈구수, 혈색소, 혈소판의 증가를 보였다.

녹혈은 동의보감에는 『허를 보하며 요통을 그치게 하고 폐가 약하여 피를 토하는 증상이나 자궁출혈, 대하등을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 한방에서는 사슴피를 내복하여 성기능 감퇴로 인한 발기부전 증상과 극도로 쇠약한 사람이 복용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정력을 증진시키며, 요통과 타박으로 인한 골절상, 그리고 코피가 계속 나오는 증상에 복용한다.

외용으로는 미친 개에게 물렸을 때 그 피를 환부에 바른다. 또 갑작스런 전신통으로 호흡이 어렵고 식은 땀이 나며, 어지러운 때에 복용하면 곧 소생하는 효력이 있다.

이상에서 녹용과 녹혈의 효능을 실험상의 결과와 예로부터 전해오는 한방서적의 내용, 그리고 실제로 임상에서 자주 쓰이는 증상을 서술하였다.

대개 녹용과 녹혈의 정확한 차이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나 상기한 바와 같이 거의 유사한 효능이 있어 전문한의사의 진찰을 받아 증상에 맞도록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인/경희대 한의대 교수)